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내일 개강

오는 11월 6일까지,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을 주제로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al)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8학기가 내일(9월 4일) 오후 2시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6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하는 이 세미나는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지난 5학기부터 해오던 로마서강해를 계속하여 강의하는데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아담 안에서 상실된 인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새사람된 모습을 계시한 로마서 7장 ~ 8장을 통해 현대교회가 풀어야 할 인성회복의 과제를 생각하며 이를 심도있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작금 사건과 사고, 가치관의 혼란 등 갖가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파괴된 인성회복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여러 강사들의 특강이 있게 된다.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학세미나에서 인성회복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며, 성경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인성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난 1992년 3월에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지난 일곱 학기동안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여성』 등을 주제로하여 국내외 석학들을 강사로 모시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전국에서 오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식사준비 및 배식, 집꾸리고 이동하기,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안내, 등록 접수,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청소,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교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껏 봉사하는 일로써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때 / 1995년 9월 4일 ~ 11월 6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곳 / 강남 YMCA 대강당

### 주제 - 『현대 교회와 인성 회복』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 4	로마서강해 (7~8장)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목회자의 인성회복과 교회갱신 김 호 식 박사(예담교회)
9 / 11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김 영 한 박사(송실대)
9 / 18		음란 매개체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김 용 진 박사(사랑의 연수원)
9 / 25		기술사회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맹 용 길 박사(장신대)
10 / 2		신앙과 인성회복 안 병 옥 교수(송실대)
10 / 9		상담을 통한 인성회복 심 상 권 박사(기독교 상담문화연구원)
10 / 16		폭력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남 재 현 박사(연세대)
10 / 23		어떻게 교회를 전인회복의 센터가 되게 할까? Clinebell 박사(클레어몬트 대)
10 / 30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성회복 고 범 서 박사(한림대)
11 / 6		교회 교육과 인성회복 오 인 탁 박사(연세대)



**장학금 수여식** 교회 내 장학생 53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41명을 선 발하여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제8학기 수강 안내

- 제 8학기 신청서 접수 마감 / 9월 4일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의 신청서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된다.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니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오도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 1.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도	.....	다함께
성시	..... <b>살전 5:16 - 18</b> .....	인도자
찬송	..... <b>307</b> .....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 <b>엡 3:20 - 21</b> .....	인도자
설교	..... <b>“영광의 찬가”</b> .....	인도자
찬송	..... <b>460</b> .....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 2. 메시지

### “영광의 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 ~ 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겠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의 송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 1.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성도의 무리 가운데  
지금도 계셔서 역사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백성으로 부르시사 다스리시고, 95년의 지난 8개월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보다는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창조주이니 그 하나님의 위업을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이며,  
약소한 선물이라도 기뻐하고,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혹 고통이 따르  
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 2.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없다면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결과가 아닌지 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기도의 은총을 잘 활용했나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회개하여 거듭난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약4:4).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온  
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릅시다.

### 3. 구할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존영을  
당대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을 뿐이지만 하  
나님께서 그의 계보에서 메시야가 나오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  
의 조상이 되는 예기치 못한 과분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베푸신 영광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큰 것이어서 다윗은 “나는 누  
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라고 감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국한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와 민족 위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 충만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  
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빈 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가난  
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 것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넘치  
도록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  
리(엡2:1)를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후대하셨습니다. 모든 권  
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시116:7).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 광야의 소리

# 독립국가?

김상철 (집사, 4교구)

**광복** 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을 벌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들여 중앙청과 국립박물관으로 쓰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대역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양이 아니라 주권독립국가로서의 의식은 어떤가? 식민지 종살이에서 벗어난지 50년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는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다져진 독립국가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국가의 제 1차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단 한 명의 시민을 구하는 일에 1백명의 해병대원이 동원되어 수고한다해도 구출 자체만 성공한다면 그 작전은 대성공이라고 크게 높임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 억류된 4백 5십 여명의 선원들은 소식조차 모르고 있는 채 북한을 돕기 위해 쌀을 주려 갔던 선박과 선원들이 한동안 억류되고 말았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북한 '법'의 위반을 자인하며 사과문을 쓰고 '쌀은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왜 북한에 쌀을 주고 있는지 이제서야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북한에 호감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말인가? 곧 여차

하면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들의 공갈협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전쟁만은 제발..." 하며 빌다보니 그 길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아마도 유화책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을 악의 집단으로 보아서는 화해와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문명사회의 원리를 부정하고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어 억압과 공포를 강요하는 체제와 법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시인해줄 수 있겠는가? 표류하던 민간인 선원과 어선을 계속 억류하는 집단과 무엇으로 협상하며, 어떻게 화해를 하겠는가?

본래 화해는 회개와 용서의 결합이다. 만일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면 아직은 화해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성경적 의미의 화해나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즉 완전한 조화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화해이며, 불의는 그 반대의 상태이다. 사랑의 정신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데 있지 악을 용납하고 심지어 지원하고 공고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집단의 악을 용납하고 지원해줄수록 한국사회를 지탱해오던 원칙들은 계속 무너지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참사로 연결되지 않을지 큰 걱정이다.

세계 어디에 자기 국민을 무단히 강제 억류하고 있는 집단,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집단에 2천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전략물자인 쌀을 계속 주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각자 일상의 인일과 잡다한 즐거움에서 벗어나 우국의 충정을 많이 나누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 ■ 병상일기

### 후회와 아쉬움을 달래면서...

한달 교회 못간 것이 일년 못간 것 같고, 교회가 그림자만 합니다. 이대로 교회 못가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 뿐입니다.

한달 전, 예배 시간 중에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왔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몸돌 바를 모르다가 주변에 계시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추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탁아부실이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기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도 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시느라 땀 흘리며 애쓰시는 모습들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껏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힘써서 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스러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보니 심장이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한다고 해요. 내 나이 80이다 되거나 수술은 어렵고 약물로 치료하기로 했지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찬양예배까지 마치고 돌아올 때면, 낙원에 다녀온 기분이라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 기쁨을 빨리 나눠 주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에 아직 안 나오는 식구가 있어 하나님께 송구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설교사나 된 것처럼 이런 저런 모양의 서울교회 예배당을 머리 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새 예배당 속히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이 남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힘 있을 때, 서울교회 위해 일 많이들 하세요. 전도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힘써서 일하세요.

하나님 일 못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음이 안타까와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드립니다.

이옥순 (권사)

■ 탐방 - 분당 1(남자) 다락방을 찾아서

“말씀이 삶의 표준

이 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고(思考)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설교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과, 사회생활 중에 성령께서 필요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체험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교회가 정한 다락방 교재를 따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 속사람의 성장을 체험했다는 분당 1다락방 남자 성도들의 고백이다. 그간 말씀에 비추어 대화를 하다보니 마음이 열린 가운데에서도 절제된 나눔이 가능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빠짐없이 모임을 지속해 온 것이 분당 1다락방 남자 성도들의 자랑이라면 자랑.

그런데 이 모임을 꾸준히 지속시켜온 데에는 몇가지 비결이 있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 주 고정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다락방장과 다락방원들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한 모임 뒤에는 교회에서 맡기신 책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오직 순종으로 일관한 다락방장(이번생 집사)의 헌신이 있었다. 두 명이 모이더라도 어김없이 시작하는 다락방장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다락방원들도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는 날이면 열일을 제치고서라도 달려오곤 하는 정성이 이 모임을 지속해 온 첫번째 원동력이 되었다.

말씀 나눔 절제 있고, 빠짐 낭비 없음 없고.

둘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다.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서 15분 정도의 융통성을 갖기는 하지만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나 공부 후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너무 늦게 끝나서 다음 날의 일과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각자 저녁식사를 하고 모임, 대접하는 가정에서는 차와 간단한 다과 정도로 간소하게 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먹는 일, 대접하는 일로 모임의 본질적인 의도가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다.

모든 것을 절제하는 가운데 시간이나 감정의 낭비, 물질과 힘의 소모를 최소로 줄인 것이다. 따라서 부담없는 모임이다.

단지, 서로의 사랑을 느껴갈수록 그리스도

인으로서, 한 사람의 다락방원으로서 잘 해보아야 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만이 커져갈 뿐이다.

다락방원들은 주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전화통화를 거듭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모임을 가진 후에 가지게 된 소속감과 주인의식에 대해 말했다. 또한 남자 다락방원들의 모임이 알차게 진행되면서 분당 1다락방 여자성도들의 모임도 더욱 충실해지고, 서로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와 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섬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함으로 다락방들이 튼실해져 가는 것은 우리교회가 건강히 서 가는 일에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장 24, 25절)

■ 교우동정 ■

- 박두호 집사(8교구)는 8월 29일(화), 경기도 포천에 『유일특수지』 공장을 신축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이찬호 성도(9교구)는 9월 1일(금), 강남 양재역 부근에 『만나 칼국수』 식당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미중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세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3. 우리교회 다락방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